

## 신라 화엄종과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The Formation Period of Huayan School and Stone Avatamsaka Sutra of Hwaelemsa Temple in Silla

---

저자 (Authors)	김복순 Kim, Bok-soon
출처 (Source)	<a href="#">신라문화 52</a> , 2018.8, 163-183(21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2</a> , 2018.8, 163-183(2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0679">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0679</a>
APA Style	김복순 (2018). 신라 화엄종과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신라문화, 52, 163-18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6 13:3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화엄종과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金 福 順\*\*

## <目 次>

- |                     |                 |
|---------------------|-----------------|
| I. 머 리 말            | III.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
| II. 화엄석경 조성의 사상적 배경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화엄석경 조성의 사상적 배경과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시기를 연구한 것이다. 먼저 화엄석경 조성의 텍스트는 60화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50화엄을 새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에 의거하여 그 텍스트가 60화엄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50화엄으로 역경되었으나 운문을 통해 60권 본으로 나누었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화엄사는 연기법사가 사경불사를 계기로 창건한 것으로 보였다. 당시 그 일대는 80화엄 선양자인 원표가 보림사에 주석하고 장생표가 설치(759)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성왕 즉위 이후 신라 불교계의 변화를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하였다. 첫째 화엄종 내지 범상종 사찰들이 선종사찰로 바뀌면서, 왕경 사찰 내지 선교성 등에 소속된 점이다. 화엄종 사찰인 보림사가 선종의 가지산사로 변하고, 원측의 제자 도증이 창건한 월광사가 선종사찰로 바뀐 것이다. 둘째 화엄종사찰이 의상계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국 10산에 12개의 사찰이 화엄대학 화엄10산의 이름으로 남았는데, 화엄사 역시 의상계 화엄10찰의 하나인 남악 화엄사로 등장하였다. 의상계 화엄사는 의상계의 주요경전인 60화엄을 텍스트로 하여 화엄석경을 조성하였다. 다음은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화엄경』 사경과 『화엄경』 석경을 비교와 통일신라시대 장인 가운데 찬자(撰者), 서자(書者), 각자(刻者)의 고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석경의 경문은 4인 이상 서사(書寫)하여 각자한 것으로 그 글자체는 구양순 해서체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육조체 계통이 약간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따라서 이 석경은 김생, 요극일등 신라 명필에 한림학사들과 각자승과 각자장의 양산이 가능해진 신라 하대 헌강왕 이후(9-10세기)에 조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와서야 신라 사회에서 석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능인들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6월 29일 <구례 화엄사 화엄석경 연구 및 보존관리 방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영문초록] This paper looked into the ideological background and the period of the construction of Stone Avatamsaka Sutra of Hwaeomsa Temple. First of all,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text made Stone Avatamsaka Sutra is 60 Huayan. It has recently been suggested that it sculpted 50 Huayan. Howeve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text is 60 Huayan through an analysis of "The Biograph of Monk Bup-Chang" written by Choi Chi-won. Because the text first was translated into 50 Huayan and the following divided into 60 volumes through revising it. Hwaeomsa Temple was founded by Buddhist monk Yeongi. At that time the influence of the installment of stay of Borimsa Temple of Wonpyo who is an introducer of 80 Huayan and to erect a monument of Jangseongpyo(759). However, the two points paid attention to changes in the Buddhist community of Silla since the throne of King Wonseong. First, Temples of Huayan or Fa-xiang School were replaced by Zen Buddhist temple, which belonged to the royal temple and the government agency, Sungyosung. The temple of Huayan school, Borim Temple, was replaced with Gajisansa Temple of Zen Buddhist temple. Second, as the Huayan temple quickly changed into the Euisang Line, 12 temples of 10 mountains remained in the name of Huayan 10 Mountain and Hwaeomsa temple also appeared as Nam-ak Hwaeomsa Temple as one of the Huayan 10 temples of Euisang Line. Euisang Line's Hwaeomsa Temple sculpted Stone Avatamsaka Sutra with the text of 60 Huayan which is a major scripture of Euisang Line. The following is a question about the period when this stone sutra was built. In order to approach this problem, I have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py of Avatamsaka Sutra" and Stone Avatamsaka Sutra, and looked into editors, writers and sculptor monks among the artisans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texts of this stone sutra were written and carved by four or more persons, and the the main shape of letters were composed of QuyangXun style, and a small number of Liuchao styl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is stone sutra was also built in the 9th and 10th centuries. Because at this time, the Technician who were able to create the stone sutra were being mass-produced in Silla society.

[주제어] 화엄사 화엄석경(the Stone Avatamsaka Sutra of Hwaeomsa Temple in Silla), 60화엄 (60 Huayan), 법장화상전(The Biograph of Monk Bup-Chang), 각자승장(刻字僧匠 : sculptor monks), 신라 하대(the late Silla Dynasty)

## I . 머리말

화엄사 화엄석경은 신라시대에 조성된 매우 희귀한 유물이지만, 현재 석경 편만이 전해지고 있다. 화마로 인한 석경의 파괴는 이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으로 이

어졌고 화엄석경의 내용과 체제가 상당히 복원된 것이 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화엄사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김복순의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 배경과 사적 의의」는 화엄석경이 삼국과 신라의 비문 내지 석경문의 위치상 어느 시기 누구에 의해 조성되었는가를 밝혀보려 했던 시원적 원고로, 「신라석경연구」라는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실상 화엄사 화엄석경 잔편의 내용을 60화엄과 대조하여 그 출처를 찾아내는 지난한 작업은 양보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같은 학교의 동료 교수로부터 받게 된 화엄사 화엄석경편을 촬영한 CD 한 장이 화엄석경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2014년 한국국학진흥원의 『한국금석문집성-신라석경-』을 간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책의 일부 내용을 시론적으로 발췌하여 「화엄사 화엄석경의 판독과 조합시론」으로 발표하였다.<sup>1)</sup> 그 사이 이 사안으로 여러 논고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필자에 대한 인용과 지적이 있었으므로,<sup>2)</sup> 이에 대한 정리가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논문을 준비하였다.

본고는 화엄석경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여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천착해 보려 한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하나는 화엄석경의 기본 text가 된 60화엄의 신라 유통에 대한 내용이다. 또 하나는 화엄석경의 조성 시기에 대한 것이다. 화엄석경은 불전의 봉안을 목적으로 『화엄경』을 석판에 새긴 유물로, 본고에서는 그 조성 시기를 신라불교사의 전개과정 상에서 찾아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의 전개보다는 신라에서 『화엄경』이 유통되어 화엄석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과 시기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 보고자 한다.

## Ⅱ. 화엄석경 조성의 사상적 배경

### 1) 60화엄의 신라 유통

화엄석경은 진본(晉本) 『화엄경』인 60화엄을 각자(刻字)한 것이다. 이에 대해 80화엄과 40화엄도 새겼다는 견해는 극복되었으나, 갑자기 50권본이 화엄석경의 저본이라는

- 
- 1) 김복순, 2002,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배경과 사적 의의」 『화엄사 화엄석경』, 화엄사, 2002, 「신라석경연구」 『동국사학』 57, 2014, 『한국금석문집성-신라석경-』, 한국국학진흥원.청명문화재단, 2012, 「화엄사 화엄석경의 판독과 조합시론」 『신라문화』 40
  - 2) 이규강, 2002, 「화엄석경과 방산석경의 이체자형 비교」 『중국어문학논집』 20, 강혜근, 2003, 「방산석경과 화엄석경 및 고려대장경의 비교연구」 『중국어문학논집』 24, 조미영, 2013, 「화엄석경의 서사 체제 연구」 『목간과 문자』 10, 2017,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신고찰」 『목간과 문자』 18

주장이 있었고,<sup>3)</sup> 이를 부정한 해명도 있었다.<sup>4)</sup> 다시 말하자면 화엄석경의 저본이 60화엄이라는 데는 동의하였지만, 60화엄 전에 나온 50화엄이 그 저본이라고 보는 의견과 비판 논고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혼선은 60화엄의 역경 상에서 벌어진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므로 다음 사료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대저 『화엄경』은 ..... 용수의 송진하본(誦傳下本)으로 10만 게나 된다. 동진의 여산(廬山) 석혜원은 이 경이 강동(江東)에 유전(流傳)되면서 미비한 곳이 많다 하여, 이에 제자 법정(法淨)과 범령(法領) 등으로 하여금 고비사막(流沙)과 설산을 넘어 멀리서 여러 경전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범령이 차구반국(遮拘槃國)에 가서 전분(前分) 3만6천 게를 구해왔다. 이 때 불현(佛賢, 불타발타라)삼장이 위진(僞秦)의 빈척(攢斥)을 받아 동림사에 투신하여 머물게 되자, 동림의 혜원이 잘 보살피 주고 재빨리 사신을 보내 그 빈척당한 일을 풀어 주었다. 불현이 뒤에 건업(建業, 남경)에 오자 도량사(道場寺)에서 범령 등이 가져온 범본 게를 역출하게 하고 남림사 범업의 필수로 50권 본의 『화엄경』을 이루었은즉, 서천이 북천의 운에 응하여 좋은(金水) 연월을 기약하였고, 동림사가 남림사의 인연을 도와 상생(木火)의 쓰임으로 큰일을 이루어 더욱 중화를 빛나게 하였다. 동안사의 혜엄, 도량사의 혜관, 학사 사령운 등이 운문하여 60권 본으로 나누었다.<sup>5)</sup>

『화엄경』의 유통에 관한 여러 기록 가운데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화엄종 선양을 위해 노력한 현수법장(賢首法藏)의 공을 10과로 서술한 「법장화상전」의 제5과에서 60『화엄경』의 도입과 변경의 전말 배경을 국제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의 내용은 최치원이 용수가 외워서 전해 내린 10만 게의 화엄경이 중국에 전해져 60화엄으로 변경된 사연을 밝힌 부분이다.

최치원은 60화엄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여산 혜원의 주선으로 동진(東晉, 317-419) 남경의 도량사에서 50권본의 『화엄경』을 이루었다가 다시 운문을 거쳐 60권 본의 『화엄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였다.<sup>6)</sup> 이는 그가 남경 근처 율수현과 양주에서 관인을 지내면서 얻은 전문(傳聞)과 자료에 근거하여 혜원을 중심으로 60화엄이 번역된 상황을 그려낸 것이다. 즉 불타발타라가 전진(7)의 빈척을 받아 동림사로 오자 그 빈척사를 풀어주고 남경에 왔을 때 범령이 구해 온 전분(前分) 3만6천 게를 번역하여 50권본을

3) 김진현, 2015, 「한역 화엄경의 보결과 50권본의 한반도 유통」 『한국불교학』 76

4) 조미영, 2017, 「화엄석경의 저본 문제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69

5) 최치원, 「법장화상전」 제5과

6) 김복순, 2003, 「의상의 행적·수학과 활동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2, p.102-103

7) 위진은 5호16국의 하나인 전진(351-394)으로 국호를 대진(大秦)이라 하였으므로, 진 제국과의 구별을 위해 최치원이 위진으로 썼다.

이루자 혜엄. 혜관. 사령운 등이 율문을 통해 60권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화엄종의 제4조인 청량징관의 경우에도 불타발타라를 중심으로 사사공사(謝司空寺)에서 60화엄을 번역한 것으로 간략히 서술하였다.<sup>8)</sup> 하지만 위의 사료에서도 보이듯이 최치원은 여산 혜원을 중심으로 50화엄이 변경되었던 것을 동안사의 혜엄. 도량사의 혜관. 학사 사령운 등이 율문하여 60권 본으로 나눈 것을 상술함으로써 60화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장 사실에 가깝게 기술하였다.

그 시기는 사령운(385-433)의 생존연대로 볼 때 50화엄이 이루어지고 곧 60화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50화엄과 60화엄은 동본동석(同本同釋)이되 편권(編卷)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본 것이다.<sup>9)</sup>

이렇게 중국의 남경에서 이루어진 60화엄은 신라에 유입되어 강경되고 소(疏)가 작성되는 등 이후 역경된 80화엄. 40화엄이 신라에 유입되어 활용된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3본 화엄이 신라에 유통된 내역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이를 입증해 줄 것이다. 먼저 60화엄에 대한 내용이다.

신라에 『화엄경』이 최초로 유입된 것은 진흥왕 26년(565)에 남조의 진에서 사신 유사와 승 명관을 보내어 방문하였으며 불교의 경론 1,700여 권을 보내 온 기록에 의거할 수 있다.<sup>10)</sup> 60화엄이 남경에서 번역된 것으로 볼 때, 남조의 진에서는 수도에서 변경된 『화엄경』을 신라에 보내는 경론 속에 필히 포함시켰을 것이다.

그 후 자장법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선덕여왕 12년(643) 3월에 귀국하면서<sup>11)</sup> 가져온 대장경 400함에도 60화엄인 진역(晉譯) 『화엄경』이 포함되었다.<sup>12)</sup> 그것은 자장이 귀국 후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원녕사로 삼고 그 낙성식 때 화엄계송 1만 개를 강의하자 52녀가 감응하여 몸을 드러내고 청강하였던 사안<sup>13)</sup>과 원효가 분황사에 머물면서 진역 『화엄경소』를 짓다가 제4 「십회향품」에 이르러 그쳤다는 사실에서이다.<sup>14)</sup> 이들은 60화엄을 텍스트로 하여 각각 강경을 하고 소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신라 화엄종에서 60화엄을 강조하게 된 중심인물은 의상이다. 의상이 처음 중국에 도착한 곳은 양주로, 661년 10월 29일에 신라에 도착한 당나라 배<sup>15)</sup>를 타고 갔기 때문에 양주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운하가 재개되기를 기다려 이듬해 봄에 서안으로 향하였다. 그는 지엄화상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나서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을 때, 그

8) 징관,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9) 이승재, 2006, 『50권본 화엄경』, 서울대 출판부, p.89

10) 『삼국사기』권4 진흥왕 26년 조

11) 『삼국사기』권5 선덕여왕 12년 조

12) 『삼국유사』권3 「전후소장사리」 조

13) 『삼국유사』권4 「자장정를」 조

14) 『삼국유사』권4 「원효불기」 조

15) 『삼국사기』권6 문무왕 원년 冬10월 29일 조

때까지 지은 글들을 모두 태워 그 가운데 불에 타지 않고 남은 글자들을 가지고 숙고 끝에 구불구불한 형태로 된 반시(槃詩)로 만든 것임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는 귀국하면서 당나라가 신라를 치려한다는 급보를 전해야 했으므로 많은 경전을 소지하지는 못했어도, 『화엄경』과 「화엄일승법계도」는 가지고 왔을 것이다. 왕경의 유식학을 기반으로 한 승려들과 지식인들에게<sup>16)</sup> 그의 반시로 대표되는 『화엄경』과 「화엄일승법계도」의 내용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당시 왕경은 신유식과 구유식 등 유식 교학이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의상의 정리되고 간결한 『화엄경』의 정수가 제대로 먹혀들어 갈 수 없었다. 또한 나당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당파의 숙청이 이루어지는 왕경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에 10여 년이나 유학하였던 의상이 편안히 머물 곳은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그는 왕경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부석산에 안착하였다. 부석산은 현재의 소백산이며 신라 오악 가운데 북악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의상이 이 곳 부석산에 정주한 것은 화엄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의상의 사상은 성기(性起)라는 핵심용어로 표현되어 「화엄일승법계도」에 농축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성, 구래부동, 해인삼매 등이 보다 분명하게 그 세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성기적 관점에서 연기를 포괄하고 있어 진리를 체험하는 실천성을 강하게 띠는 것으로 본 것이다.<sup>17)</sup>

그의 관심은 치열하게 얻은 『화엄경』의 진수인 「화엄일승법계도」를 어떻게 신라 땅에 알려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것인가에 있었다. 때문에 그는 귀국 후 곧 신라의 제일 변방에 해당되는 낙산으로 나아가 감응을 얻은 후 안착할 곳으로 물색한 것이 바로 부석산이었다. 그는 진골로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출가하였을 뿐 아니라, 유학하면서 얻은 깨달음의 결정체인 「화엄일승법계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귀국 후의 활동무대도 왕경에 연연하지 않고 지방의 부석산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중생에게 회향하면서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 의상에게 직접 배운 제자로서 확실하게 행적을 남긴 이는 하급군인 출신의 진정, 이랑공택의 종이었던 지통, 오진, 상원, 양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이들에게 「화엄일승법계도」를 중심으로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 주었다.<sup>18)</sup> 소백산 추동(錐洞)에서 90일회, 부석산 40일회가 『추동기』(지통문답, 요의문답), 『도신장』(일승문답)으로 정리되었다. 의상은 제자들에게 의심나는 곳을 묻게 하고 답하는 형식의 강설을 하였는데 이를 석독구결(釋讀口訣)의 형식으로 문답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신라의 강경법회는 대상을 누구

16) 지의, 경흥, 명량, 김천준, 김지성 등

17) 전해주, 1993, 『의상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pp.174-193

18) 『삼국유사』 권5 「진정사 효선쌍미」조에 의하면, 진정사가 효와 선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노모를 홀로 두고 출가하여 수행하던 중 부음을 받고 7일 간 입정에 들었다가 이 사실을 스승 의상에게 고하자, 의상이 소백산 추동에서 90일 동안이나 『화엄경』을 강경하였다. 이 때 지통이 스승의 강의를 듣고 정리한 것이 『추동기』(2권)이다.

로 하였는가에 따라 강경의 유형이 달라졌는데,<sup>19)</sup> 의상이 고려시대에 금산보개의 화신으로 기록된 것은 그의 강경형태에 따른 것이다.

의상은 제자들에게 관법수행을 병행하도록 하였는데, 청량산 의상봉 아래의 의상굴과 제자 지통이 화엄관을 수행한 태백산 미리암굴은 유명하다. 그는 제자들의 깨달음의 상태를 보고 법계도인(法界圖印)을 주어 그들의 깨달음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의상은 제자 양성에 문답형식의 강경과 함께 관법수행을 병행하게 하는 등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주본(周本, 695-699) 『화엄경』인 80화엄은 699년에 완역되어 신라에도 8세기 초에 전래되었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상의 제자인 오진화상이 당의 요원(了源)화상에게 그 품수를 묻고 있어 80화엄의 변경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754년에는 황룡사승 연기(緣起)에 의해 80화엄이 사경되었고, 셋째 80화엄을 주 내용으로 하는 표원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sup>20)</sup>에 80화엄 최초의 주석서인 『간정기(刊定記)』가 인용되어 있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간정기』가 전래된 것을 736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신라에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8세기 초반 무렵에 80화엄과 『간정기』가 전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상은 702년에 입적하였으므로 측천무후의 주(周)왕조에서 699년에 번역된 80화엄을 강경할 수는 없었는데, 의상계 화엄이 60화엄과 「화엄일승법계도기」를 중심으로 교학이 형성된 것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40화엄(796-798)은 정원 연간에 조성되어 정원신경(貞元新經)이라고도 한다. 소성왕 때 승 범수(梵修)가 중국에서 가져온 신역후분(新譯後分) 『화엄경』이 정원신경인 40화엄이다.<sup>21)</sup> 40화엄은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그 양이 적어서 신역후분이라 하였다. 799년에 신라에 전해졌으므로 변경 후 곧 신라에 유통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주 황복사지의 3층석탑(성덕왕 5년, 706)에 봉안되었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역출된 지 불과 2년 후인 706년에 신라에 전래되어 황복사 석탑에 함재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40화엄은 798년에 완역된 직후 곧바로 사경하여

19) 김복순, 2017, 「황룡사 강경법회-신라 강경법회의 유형과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67, pp.165-170 에 의하면, 신라에서 국왕, 왕실, 대신 등을 대상으로 국찰 내지 왕궁 등의 장소에서 행해진 강경법회는 혜량, 원광, 자장, 원효, 경흥, 태현 등 국통 내지 그에 버금가는 인물들이 강경법회에 앞서 미리 강경안 내지 疏文을 작성하였다. 이와는 달리 강사의 제자 내지 신도 심지어 돌맹이를 대상으로 한 일반사찰 내지 벽지에서 행한 강경법회는 낭지, 의상, 승전, 진표 등 후대에 선양된 고승들로 그의 제자들에 의해 강경내용이 정리되었다.

20) 표원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은 화엄교학의 요점을 18과로 나누어 문답형식으로 서술되었다. 각 과목마다 제목과 출제, 문답분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이 가운데 7처9회의(七處九會義)로 볼 때 80화엄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 『삼국유사』 권4 「승전족루」조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화엄경』이 신라에 들어와 유통된 것은 6세기부터 시작되어 799년인 8세기 말까지 300여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2) 화엄사의 계통

화엄사는 신라시대에 화엄10찰의 하나로 다음의 사료에 보인다.

2) 대개 해동의 각모(覺母)는 의상법사가 시조이다. 그러나 처음 왔을 때에는 동가구(東家丘, 동쪽 집의 孔丘)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법신(法信)이 멀리서 전해져오자 많은 미혹을 두루 깨우칠 수 있었다. 이는 실로 촉룡(燭龍)이 눈을 떠서 단번에 광명을 놓고, 베 짜는 화서(火鼠)의 털이 더욱 기특함을 나타내는 듯하다. 선유(善誘)는 일국에 미쳤고, 교학은 10산[해동의 화엄대학으로 10산이 있다. 중앙 공산의 미리사, 남악 지리산의 화엄사, 북악 부석사, 강주 가야산의 해인사와 보광사, 웅주 가야협외의 보원사, 계룡산 갑사 곧 괘지지에 이른 계람산이 이곳이다, 삭주 화산사, 양주 금정산 범어사, 비슬산 옥천사, 전주 모산 국신사, 또한 한주 부아산 청담사와 같은 곳이 있으니, 이 십여 곳이다]에 두루 퍼졌으니 화엄이 우리나라에 빛나게 된 것은 대개 법장스님의 공이다.<sup>22)</sup>

3) 의상이 이에 10찰로 하여금 전교(傳敎)하게 하였는데, 태백산의 부석사, 원주의 비마라사, 가야의 해인사, 비슬의 옥천사, 금정의 범어사, 남악의 화엄사 등이 그것이다.<sup>23)</sup>

화엄10찰은 대개 최치원이 「법장화상전」을 저술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창건되거나 의상계로 편입된 것으로 보는데, 10찰 가운데 「법장화상전」에 나오는 12개 사찰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남악의 화엄사는 위의 두 사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 9세기 이후에는 의상계 화엄종 사찰임을 알려주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화엄사와 관련된 기록으로 처음 나오는 것은 창건주로 알려져 있는 연기법사이다. 신라 「백지묵서화엄경」의 발문에는 황룡사승 연기법사가 80화엄의 1부를 사경하기 위해 무진주와 완산주의 지방 사람들을 동원하여 6개월 여에 걸친 작업으로 완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연기법사는 『화엄진류환원낙도(華嚴眞流還源樂圖)』 1권, 『화엄경요결(華嚴經要訣)』 12권, 『화엄개종결의(華嚴開宗決疑)』 30권, 『대승기신론주강(大乘起信論珠綱)』 3권 등의 저술이 있다. 그 내용이 전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가

22) 「법장화상전」 제9과

23) 『삼국유사』권4 「의상전교」조

운데 화엄관계저술들은 그가 사경을 주도한 것 등을 감안할 때, 80화엄에 대한 주석서들로 보인다. 고려에 와서 대각국사 의천이 연기 법사를 놓고 위론(偉論)인 『대승기신론』과 웅경(雄經)인 『화엄경』을 널리 수호하였다고 칭송한 이유는, 그가 원효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80화엄의 선양자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황룡사승 연기법사의 단월은 경덕왕의 선비인 삼모부인 측으로 추정된다.<sup>24)</sup> 그는 황룡사승임을 밝히고 무진주와 완산주 인들을 동원하여 화엄경 사경의 대불사를 행하였다. 또한 그는 화엄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으로 동명이인설을 언급한 견해도 있다.<sup>25)</sup> 그런데 당시 무진주에는 80화엄의 선양자인 원표가 보림사에 주석하였는데, 759년 장생표가 설치될 정도였으므로 이 일대에 80화엄의 선양이 큰 붐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기법사는 이 사경불사를 계기로 화엄사 창건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경덕왕 대에 의상계 화엄종은 새로이 부상하는 종파로서 중대 전반과는 달리 의상의 법손(法孫)들이 활약하고 있어 초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부석적손으로 불리는 신림은 법융(法融) 외에도 진수(眞秀), 순응(順應), 질응(質應), 숭업사(崇業師), 대운법사(大雲法師) 군(君) 등 많은 인재를 길러 내었다. 다만 의상의 제자로 나오는 표훈은 황복사승으로 751년부터 불국사를 창건하고 있는데, 상원(上元) 원년(760) 황복사에 주석한 사실, 대정(大正) 각간 김대성과의 문답, 경덕왕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부탁한 일 등 경덕왕 대의 대덕으로 활약하고 있어 702년에 입적하는 의상의 생존 시 친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sup>26)</sup>

경덕왕 대의 부석계 화엄에는 신림과 표훈 외에 의상의 법계 상의 종질(從姪)인 현수법장의 제자 승전이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 갈항사가 중창되고 있다. 승전에 의하여

24) 김복순, 1990,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pp.80-81

25) 박미선, 2011, 「신라 백지묵서화엄경의 사경 발원자와 사경장소」 『역사와 현실』 81, pp.29-56에서는 중대 말에 화엄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룡사승 연기법사에 대해 같은 인물이 아닐 가능성과 화엄경 사경장소를 서울로 보는 입장이 개진된 바 있다.

26) 김복순, 1994, 「표훈」 『가산학보』 3, pp.53-69에 의하면, 경덕왕 17년에 혜공왕이 탄생하였는데 표훈은 그 2년 후인 경덕왕 19년에 황복사에 주하면서 부석계 화엄을 배운 것 같다. 그것은 그가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를 대상으로 한 오관석(五觀釋), 사문석(四門釋), (五生滅釋) 등을 저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황복사에서 김대성과 삼본정(三本定)의 문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표훈은 신림과 함께 불국사, 석불사 등과 관련한 내용 등 경덕왕 대의 인물로 여러 곳에 나오고 있으므로, 표훈 역시 신림이 배운 상원사나 진정덕에게 사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표훈은 진정덕의 삼생멸석을 오생멸석으로, 삼문석을 사문석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이것을 사만의과(四滿義科)로도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훈이 진정에게서 화엄을 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게 하는데, 진정의 낮은 신분으로 사승관계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중국 화엄종의 제4조인 청량징관의 경우에도 법장에게 친히 사사 받지 않았지만 바로 연결시킨 예를 들 수 있다.

창건된 갈항사는 현재 경북 김천 근처의 금릉군 남면 오봉동(梧鳳洞) 뒤편에 석불상이 산재하여 있어 그 사역을 알려주고 있다. 이 갈항사는 경덕왕 17년(758)에 가서야 3층의 쌍탑을 세우는 등 단월인 언적(言寂) 법사를 중심으로 한 김경신(金敬信)의 외가, 즉 박씨 가문에 의하여 중창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박씨 가문이 그들의 중창 내력을 이 석탑에 확실하게 새긴 것은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한 785년 이후의 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승전이 귀국한 해를 692년으로 추정한다면<sup>27)</sup> 90여 년이 지난 후로, 무열제가 아닌 내물계의 원찰로서 조성되었다. 또한 원성왕이 즉위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탑 면에 새길 수 있었던 것은 경덕왕 대에 의상계가 활동한 것으로 나오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대에 가서야 왕실과 연계되면서 표면적으로 활동이 활발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신라 불교계는 원성왕의 즉위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왕경과 지방의 사찰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실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두 가지 점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화엄종 내지 법상종 계의 사찰들이 선종사찰로 바뀌면서 왕경 사찰 내지 선교성 등에 소속된 점이다. 먼저 화엄종 사찰이 선종사찰로 바뀐 예로 보림사가 가지산사로 변한 것이다.

4) 이듬해인 860년 김언경이 사재를 내어 철제비로자나불 1구를 주조하여 절을 장엄하고, 망수택(望水宅), 이남택(里南宅) 등도 금160푼, 조2000푼을 내놓아 공덕을 꾸미는데 도와 충당하고 가지산사는 선교성에 속하게 하였다. 861년 10방에서 물자를 보시하여 절을 확장하고 경사스런 낙성일에 선사가 임하니 암수 무지개가 범당을 뚫고 들어와 방을 휘황하게 비추며 반짝이는 빛이 사람을 밝혀 주었다.<sup>28)</sup>

현안왕 3년(859) 겨울 10월에 가지산문에 속하는 체징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보림사는 화엄종사찰에서 선종사찰로 바뀌고 있다. 859년 체징의 보림사 주석이 왕명으로 정해지면서 860년 철조비로자나불이 조성되고, 신라 왕경의 망수택, 이남택 등에서 금과 조를 내어 공덕을 꾸미는데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가지산사는 선교성에 속한 사찰로 정해진 것이다. 2년만인 861년에는 사찰이 낙성되고, 다시 현강왕 10년(884)에 보조선사탑비가 세워지면서 선종사찰로 확고히 자리한 것이다. 759년 원표가 주석한 보림사에 장생표가 설치될 정도로 알려진 화엄종 사찰이었지만, 100년이 지난 859년에는 선사 체징이주석하는 선종사찰로 변화한 것이다.

27) 이능화, 『조선불교통사』상, 이병도, 1959, 「당법장기신라의상서(唐法藏寄新羅義湘書)에 대하여」 『황희돈선생고회기념 사학논총』, p.203

28) 김영 찬, 「보림사 보조선사비문」

다음으로 법상종 승려가 창건한 사찰이 선종사찰로 바뀐 예로 월광사(月光寺)를 들 수 있다.

5) 낭혜화상이 원랑선사가 귀국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맞아들였다. 원랑은 이듬 해 봄에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름 저녁 꿈에 월악산의 신관(神官)이 나타나서 그곳으로 오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되자 자인선사가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월광사는 신승(神僧) 도증(道證)이 세운 곳으로, 과거에 우리 태종대왕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삼한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통일을 달성하신 때에 〰〰〰의 〰을 입어 〰〰의 재앙을 영원히 없앴다고 하여 특별히 이 산을 표창하여 으뜸되는 공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일찍부터 금강에 기록되어 있고 선기(仙記)에 이름이 전해왔다. 시냇물은 맑고 차가우며 안개는 뭉개뭉개 피어오르는 속에 빼어난 기운을 간직하고 있고 〰전(傳)을 두루 갖추고 있으니 선사는 거기에 가서 거주하라’ 하였다. 선사는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이 곧바로 옷을 떨치고 나아갔다. 저녁의 꿈에 전에 나타났던 신관이 나타나 모시면서 가까이 다가와 말하기를 “전에 외람되게 말씀 드린 바 있었는데 수고롭게도 멀리서 와 주셨군요” 하였다.<sup>29)</sup>

6) 경문대왕은 오랫동안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넓히려 하고 하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셨는데 멀리서 선사의 덕을 듣고서 좋은 〰을 세울 생각으로 ……(7자 결락) 월 5일에 관영(觀榮)법사를 보내어 멀리서 금조(金詔)를 내려 칭찬하고 산문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월광사는 계속하여 선사가 주지를 맡도록 하였다. 또 1년이 지나자 임금께서 다시 살펴보시며 거듭 윤음을 내리고 잇달아 은혜를 베풀어 차와 ……(6자 결락)를 멀리에서 보내는 두터운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 세상에서는 이를 영광이라고 여겼고 그에 따라 산문은 더욱 빛나게 되었다.<sup>30)</sup>

원랑선사는 당에서 귀국하자 낭혜화상이 사람을 보내어 맞아들였으나, 원랑은 이듬 해 봄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가 월악산 신관이 꿈에 나타나 그곳으로 오기를 청하였고, 이튿날 새벽 자인선사가 글을 보내 월광사에 머물 것을 청하여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다. 즉 원축의 제자 도증이 머물던 법상종 사찰인 월광사에 원랑선사가 머무는 선종사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가 이 산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경문왕이 그의 법력을 듣고 관영법사를 보내 그를 월광사의 주지로 임명하는 조칙을 보냄으로써 국가에서 법상종의 도증이 창건한 사찰을 원랑선사가 주지를 하는 선종사찰로 바꾼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29) 김영 찬, 「월광사 원랑선사비문」

30) 김영 찬, 「월광사 원랑선사비문」

둘째는 화염종사찰이 의상계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국 10산에 12개의 사찰이 화염대학 화염10산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라 하대 원성왕의 즉위에 갈항사의 승전이 단월로 깊숙이 간여되어 있음을 보았는데, 이때부터 왕경에서도 표훈이 유가승에서 화염승으로 바뀌는 등 의상계 화염종 승려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앞서 보림사가 선종사찰로 바뀌었다는 것은 신라 왕실이 이 일대 사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보여준다. 화염사 역시 의상계 화염10찰 내지 화염대학의 10산의 하나인 남악의 화염사로 바뀌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연기법사에 의해 창건이 기획되었을 화염사는 신라가 하대에 접어들면서 의상계 화염승들에 의해 화염10산의 하나인 남악의 사찰로 편입되고, 9세기 대로 추정되는 석조유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형성이 되어졌을 것이다. 화염사에 효대가 만들어진 것은 후대에 당초 창건자의 효심을 기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화염사를 장악한 의상계는 그들의 중심텍스트인 60화염으로 화엄석경을 조성하였다.<sup>31)</sup>

실제 신라시대에는 『화엄경』 자체에 대한 주석서가 매우 드물어 원효의 『화엄경소』와 태현의 『화엄경고적기』, 표원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 반면 의상의 「화염일승법계도기」에 대한 해설서는 가장 많이 찬술되었으며, 이에 대한 아류로 명효의 『해인삼매론』, 『화염일승수행자비밀의기』 등의 반시가 있는 것은 화엄학의 이론을 설명하기 보다는 깨달음의 경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32)</sup>

이는 신라인들의 『화엄경』 이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수행형태에서 『화엄경』을 사경한다든가 석경을 조성하는 불사가 이루어지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 생각된다.

31) 기존 교종사찰들은 왕실의 원찰로서 많은 토지가 기진되면서 경제적으로 비대해지는데, 특히 해인사는 사중이 남악파와 북악파로 나뉘어 고려 광종 때까지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일 정도로 파벌을 이루었다고 한다. 해인사 내에서의 남악과 북악의 존재에 대해 여러 견해가 나온 바 있다. 즉, 『화엄경』과 기신론을 위주로 한 화염사의 연기계와 법계도기를 중심으로 한 부석사의 의상계로 남악과 북악을 구별한 최병헌, 의상계 내의 연기론적 해석경향(남악)과 성기론적 경향(북악)으로 구별한 김두진, 정치세력의 분열에 따른 분화로 본 허홍식, 화염사의 원효계와 부석사의 의상계 학풍으로 구별한 고익진, 해인사에 침투한 견훤과 태조 왕건이 관혜와 희랑을 각각 북전으로 삼은데 따른 파벌로 인한 것으로 본 김복순, 의상계의 해인사 내의 분파로 본 김상현의 견해, 남악은 법장계로 연기사상을 북악은 의상계로 성기사상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본 전해주의 견해가 있다.

32) 최연식, 2011, 「신라 및 고려시대 화엄학 문헌의 성격과 내용」 『불교학보』 60, pp.235-248

### Ⅲ.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화엄석경의 조성 시기는 7세기, 8세기, 9세기 등 여러 견해가 도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도 되어 있는 상태이다.<sup>33)</sup> 근래 제출된 견해로 화엄석경을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의 변상도와 비교하고 금강경석경과의 유사한 서풍을 들어 8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고고학적 근거 등 여러 전거를 들어 8세기 전반으로 올려보고 있으나, 필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신라 금석문의 발전 양상과 석각 장인이 양산되는 9-10세기 설을 주장하는 입장임을 먼저 밝히고 이에 대한 고증은 다음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신라는 불교유입 이후 중국으로부터 많은 불경들이 들어왔다. 명관의 전래에 이어 자장의 전래로 대장경이 대부분 갖추어진 것이다.<sup>34)</sup> 이후로는 새로이 역출된 불경과 장소(章疏)만이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는 호국 공덕신앙의 측면에서 사경이 행해지고, 불탑에는 무구정광대다라니가 봉안되어졌다.<sup>35)</sup> 여기에 더하여 석경 형태로 불경을 전하려는 불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화엄석경을 조성한 이들의 출현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화엄경』 사경과 『화엄경』 석경의 비교이다. 『화엄경』 석경은 그 대상이 60화엄인데 비해 사경은 80화엄이다. 또한 조성을 발원한 이를 보면, 석경은 미상인데 비해, 사경은 경덕왕 대에 황룡사에 적을 두고 있던 연기조사가 부모의 은혜를 갚고 법계중생이 불도를 이루기를 발원하며 사경한 것이다. 연기는 조사라는 호칭으로 볼 때 80화엄을 위주로 한 화엄종의 조사로 생각된다. 그것은 80화엄을 사경하였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80화엄의 소인 청량대소(淸涼大疏) 즉 『화엄경수소연의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sup>36)</sup> 대각국사 의천이 화엄사에 머물면서 연기조사의 진영을 보고 찬시를 짓고, 그의 『신편제종교장총록』권1에 『화엄경개종결의(華嚴經開宗決疑)』 30권 등 4종류의 저술을 싣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신라에 화엄종을 전래한 해동 화엄초조로 불리는 의상은 60화엄을 대상으로 한 교학체계를 가진 인물로서, 그의 저술인 「화엄일승법계도기」에 대한 그의 제자들의 주석

33) 조미영, 2017,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신고찰」 『목간과 문자』 18, pp.84-87

34) 『삼국사기』권4 진흥왕 26년조, 『삼국유사』권4 「전후소장사리」조

35) 황복사지 삼층석탑에는 죽간에 묵서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봉안되어 있었고, 봉성사지로 추정되는(윤선대) 경주 나원리사지 5층석탑에는 麻紙에 여러 벌 묵서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봉안되어 있었다. 또 「창림사무구정탑원기」(855)에 의하면 창림사지 삼층석탑에도 사경을 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봉안되어 있었다.

36) 최병현, 1980, 「고려시대 화엄학의 변천-균여파와 의천파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0, pp.384-388

서를 모은 『법계도기총수록』은 60화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60화엄을 텍스트로 하여 석각을 한 이 화엄석경은 의상 내지 그 제자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제자들이 신라 불교계에서 대덕(大德)으로 활약하게 되는 상황은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던 것이다.

754년 연기에 의해 80화엄이 사경되고 난 이후, 신라 하대에는 60화엄의 사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다. 민애왕 원년(838) 승 균량이 중심이 되어 선의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춘추지사(春秋之社)를 결성하여 사경을 하고 있다. 정강왕 원년(886) 7월 5일에 승 현준이 주도한 춘추지전독회(春秋之轉讀會)에서 60화엄과 40화엄 양부의 사경이 10일 동안 10질이 이루어지고 있다.<sup>37)</sup> 9C에 이르러 매우 속도가 빨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경수들을 동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화엄경』 석경의 출현은 이러한 사상사적 토양과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통일신라시대의 장인 가운데 찬자(撰者), 서자(書者), 각자(刻者)에 대한 고찰이다. 신라는 신문왕 2년(682) 국학이 설립되고 경덕왕 6년(747)에 처음으로 전문국학박사를 두었다. 이들은 주역업(周易業), 상서업(尙書業), 모시업(毛詩業), 예기업(禮記業), 춘추좌씨전업(春秋左氏傳業), 문선업(文選業)으로 분류되어졌다. 문선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금석문 자료가 게재되어 문선업의 국학전문박사는 금석문에 대한 지식의 체득이 필수였다. 이에 국학 소속의 제업(諸業)박사들은 서법(書法)과 금석학에 조예가 깊었고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당시 서법과 금석학이 풍미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상문사에서 통문박사를 거쳐 한림학사들은 국왕의 교와 조를 찬술하고 비석에 쓰거나 새기기도 하였다. 「성덕대왕신종명」(771), 진주 「연지사종명」(833), 「영천청제비 정원수치기」(798), 「황룡사9층목탑찰주본기」(871) 등에 나오는 주종(鑄鐘)대박사, 사(史), 전자(鑄字)대박사 등의 배출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사는 서사(書史)의 약칭으로 관련문서의 작성 및 필사, 전자 등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고려시대에 개정전시과와 개정전시과에 나오는 서학(書學)박사, 전서(篆書)박사, 서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38)</sup>

이렇게 신라시대의 장인들은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는데, 현재 기록에 전하고 있는 신라 장인을 망라해 보면, 대개 목탑과 석탑을 만들던 장인, 종과 불상을 만들던 장인, 사경에 종사한 장인, 금석에 각자(刻字)를 한 장인과 각자승장(刻字僧匠) 등으로 분류된다.<sup>39)</sup>

37) 최치원, 「華嚴經社願文」, 김복순, 1990,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pp.86-88에 의하면 사경참여 인물은 상제, 국척, 대신, 국통, 승록 등이고, 양부를 10일에 10질을 완성하고 있어, 연기에 의한 사경이 1부 6개월에 완성된 것에 비해 매우 빨리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8) 노용필, 2018, 「통일신라기 금석문 전문 박사 학사의 대두와 서법 금석학의 풍미」 『한국고대사탐구』 28, pp.357-387

39) 박남수, 1994, 「통일신라 사원성전과 불사의 조영체계」 『동국사학』 28(1996, 『신라수공업사』, pp.189-192)

화엄경 석경의 석수 출현 시기는 다수의 선사비문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전후로 추정된다. 선사비문에는 각수 내지 각자승의 이름이 다수 출현하고 있어, 화엄 석경을 각자했던 이들 가운데 특히 솜씨가 뛰어난 이들이 발탁되면서 그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표 I로 만들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 (720년 ~ 924년)

	탑비	찬자	서자	각자
1	감산사 아미타상 조상기 성덕왕 19년(720)	奈麻聰	沙門釋京融	大舍 金驟源
2	고선사 서당화상비 9세기 초(800-808)			淸里火 三千幢主 級飡 高金 匱
3	신행선사비 헌덕왕 5년(813) 9월 9일	김헌정	東溪沙門 靈業	
4	적인선사비 경문왕 12년(872)	崔賀	姚克一	
5	보조선사비 헌강왕 10년(884) 9월 19일	金穎	1.金蓮(구양순체 해서) 2.從頭第七行 禪字已下 金彦卿(왕희지체 행서)	興輪寺僧 釋賢暢
6	홍각선사비 정강왕 1년(886) 10월 9일	金蓮	沙門雲徹이 晉右將軍 王羲之書 集字 崔瓊이 篆額	報德寺沙門 慧江
7	진감선사비 정강왕 2년(887)	최치원	최치원이 제액과 비문	僧 奐榮
8	낭혜화상비 진성여왕 4년(890)	최치원	崔仁洸	

9	원랑선사비 진성여왕4년(890) 9월15일	金類	五騰山菩提潭寺 釋迦沙門 淳夢	원랑선사의 門下僧 眞胤等
10	수철화상비 진성여왕 7년(893)			門下弟子 比丘 飲光
11	대승복사비문 진성여왕 10년(896)	최치원		☐☐☐手 栴鐺等
12	해인사탑지 (해인사묘길상탑기 진성여왕9년(895)7월16일)	최치원	大匠 僧蘭交 匠士 僧蘭交 僧 清裕 副 居佛 堅相 具祖 句當維那 僧 性幽 僧 忍淨	乞士 釋宜
13	해인사탑지 五臺山寺 吉祥塔詞 除序	沙門 僧訓	僧 釋熹	
14	지증대사비문 경애왕 1년(924) 6월	최치원	분황사승 혜강(慧江) - 83세	분황사승 혜강(慧江) - 83세
15	진경대사비 경명왕 8년(924) 4월 1일	경명왕	문하승 행기 전액은 최인연	門下僧 性休(林)

위에 보이는 서자와 각자를 담당한 장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8세기에는 「감산사 아미타상조상기」의 사문 석경융과 대사 김취원이 서와 각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sup>40)</sup>

9세기 초에는 「고선사 서당화상비」의 각자로 음리화 삼천당주 급찬 고금☐이, 「신행선사비」의 서자로 동계사문 영업이 나온다.

9세기 후반부터는 많은 장인들이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적인선사비」의 서자로 요극일, 「보조선사비」의 서자는 김원과 김언경, 흥륜사승 석현창이 각자를 하였는

40)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pp.293-302, 김복순. 한정호편저, 2012, 『한국금석문집성』 14, pp.31-41

데, 김원은 구양순체의 해서, 김언경은 왕희지체의 행서를 구사하였다. 「홍각선사비」는 사문 윤철이 진우장군 왕희지서를 집자하였고, 거성현의 최경이 비액전자(篆額)를 쓰고 보덕사 사문 혜강이 각자하였다. 「진감선사비」는 최치원이 찬하고 전서의 제액과 비문글씨도 썼는데, 승 환영이 각자하였다. 「낭혜화상비」는 서자로 최인연이 나온다. 「원랑선사비」는 오등산 보리담사 석가사문 순몽이 서자로, 대통 원랑선사의 문하승 진윤 등이 각자하였다. 「수철화상비」는 문하제자 비구 음광이 새기었다. 「대승복사비문」은 卍卍卍수 환건 등이 각자로 나온다. 「해인사묘길상탑기」는 대장(大匠) 승 난교가 쓴 글씨를, 41) 걸사 석의가 지석을 필각하였다. 그런데 「해인사묘길상탑기」와 「오대산사길상탑사」은 모두 승 석희를 서자로 보기도 한다. 42) 「지증대사비문」은 분황사 승 혜강(慧江)이 나이 83세에 글씨를 쓰고 아울러 글자를 새기었다. 「진경대사비」는 문하승 행기가 서자, 전액은 최인연이 쓰고 문하승 성휴(性休(林,림))이 각자하였다.

9세기 후반부터의 서자로는 요극일, 김원, 김언경, 윤철, 최경, 최치원, 최인연, 순몽, 석희, 혜강, 행기 등이, 각자로는 석현창, 혜강, 환영, 진윤 등, 음광, 석의, 성림(휴)이 나온다. 서자와 달리 각자는 대개 승장들로서, 혜강은 보덕사 사문에서 분황사사문으로 옮기면서 83세까지 각자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는 문하에 많은 승장들을 배출하였을 가능성이 보인다. 43)

이와 함께 고려 초의 비문에는 더욱 많은 승장들이 나온다. 자적선사비(941)의 승 연훈, 법오, 심장 등, 법경대사비(943)의 승 광예, 장초, 행총, 행초, 낭공대사비의 승 승태, 수규, 청직, 혜초, 통진대사비(958)의 문생 승 계목 등 승장들이 집단적으로 비문의 각자승으로 등장하는 것도 화엄석경 조성 후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래에 발굴된 영국사터에서 출토된 10-11세기로 추정되는 법화석경편은 화엄석경의 조성시기를 신라 말로 볼 수 있는 방증자료라고 하겠다. 44)

화엄석경의 전체 글자 수인 497,451자를 각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각자승의 수는 집단을 이루어야 한다. 화엄석경은 4인 이상 서사(書寫)하여 각자한 것으로 그 글 자체는 구양순 해서체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육조체 계통이 약간 있는 것으로

41) 이홍직, 1971, 「나말 전란과 치군」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p.547

42) 권영오, 2016, 「신라말 해인사와 주변지역 정세」 『한국고대사연구』 82, pp.317-320에서 '海印寺', '僧蘭交', '軋寧二年'을 비교해서 모두 釋燾가 썼다고 하였다.

43) 한국역사연구회, 1996, 『역주 나말여초금석문』상하, 해안

44) 한성백제박물관, 2018, 『천년 만에 빛을 본 영국사와 도봉서원』, pp.92-107에 의하면, 2012년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중 고려시대 불교용구 79점이 출토되어 이곳이 고려시대 영국사(寧國寺)가 그 전신이었음을 알려주었다. 그 유물 가운데 글자가 새겨진 석각 편 5점이 출토되었다. 3점은 법화석경인데 구양순 해서체를 새긴 것으로 고려 10-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석경 편은 구양순 해서체이지만 양식적인 면에 있어 화엄석경보다 시대가 뒤지고 있어 화엄석경의 신라 말 조성을 뒷받침해주는 방증자료로 볼 수 있다.

판독되었다. 최치원의 귀국이 신라에 구양순체를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sup>45)</sup> 이미 김생, 요극일등에 의해 형성된 신라 명필의 전통에 최치원, 최인연 등으로 대표되는 유학생 출신의 한림학사들이 더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명필들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각자승과 각자장의 양산이 가능해진 신라 하대 헌강왕 이후의 시기를 화엄석경 조성의 한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이 논문은 화엄석경 복원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화엄석경 조성의 사상적 배경과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시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먼저 화엄석경 조성의 사상적 배경으로 그 텍스트는 60화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50화엄을 새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에 50화엄으로 역경된 것을 윤문을 통해 60권 본으로 나눈 내용을 들어, 그 텍스트가 60화엄임을 확인하였다. 화엄사는 80화엄 선양자인 원표의 보림사 주석과 장생표 설치(759)에 힘입어 연기법사가 사경불사를 계기로 화엄사를 창건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원성왕 즉위 이후 신라 불교계의 변화를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하였다. 첫째 화엄종 내지 법상종 사찰들이 선종사찰로 바뀌면서, 왕경 사찰 내지 선교성 등에 소속된 점이다. 화엄종 사찰인 보림사가 선종의 가지산사로 변하고, 원측의 제자 도증이 창건한 월광사가 원광선사가 주석하는 선종사찰로 바뀐 것이다. 둘째 화엄종사찰이 의상계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국 10산에 12개의 사찰이 화엄대학 화엄10산의 이름으로 남았는데, 화엄사 역시 의상계 화엄10찰의 하나인 남악 화엄사로 등장하였다. 의상계 화엄사는 의상계의 주요경전인 60화엄을 텍스트로 하여 화엄석경을 조성하였다.

다음은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시기로, 신라 금석문의 발전 양상과 석각 장인이 양산되는 9-10세기 설을 견지하였다. 『화엄경』 사경과 『화엄경』 석경을 비교하고, 통일신라시대 장인 가운데 찬자, 서자, 각자를 고찰하였다. 신라 하대 선사비문에는 각수 내지 각자승의 이름이 다수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화엄석경을 각자했던 이들 가운데 솜씨가 뛰어난 이들이 발탁되면서 그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9세기 후반 서자로는 요극일, 김원, 김언경, 윤철, 최경, 최치원, 최인연, 순몽, 석희, 혜강, 행기 등이, 각자로는 석현창, 혜강, 환영, 진운 등, 음광, 석의가 나온다. 서자와 달리 각자는 대개 승장들로서, 혜강은 보덕사 사문에서 분황사 승으로 옮기면서 83세까지 각자하고 있는데, 문하에 많은 승장들을 배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화엄석경은 4인 이상 서사

45) 정상욱, 2000, 「불교금석의 발흥과 왕회지 서풍」 『불교미술』 16, p.87, 동국대학교 박물관

(書寫)하여 각자한 것으로 그 글자체는 구양순 해서체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육조체 계통이 약간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즉 김생, 요극일등 신라 명필에 최치원, 최인연 등 유학생 출신의 한림학사들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각자승과 각자장의 양산이 가능해진 신라 하대 헌강왕 이후의 시기를 화엄석경 조성의 한 시기로 추정하였다.

화엄사의 화엄경 석경은 현전하는 최고 난제의 문화재로서 이를 어떻게 복원해 내느냐에 따라 향후 이 일대의 문화산업이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 예를 들자면, 봉암사 정진대사비에는 남해의 여미현(전남 화순군)에서 돌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별도의 돌을 구하게 되어 중단시키었다. 그러나 최치원 찬의 지증대사비를 조성하면서 그 비석의 돌을 남해에서 가져오면서 많은 원성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6)</sup> 이로 보면 당시 남해산 돌을 불사에 많이 이용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남원에서 남해까지는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 강을 통해 돌을 쉽게 운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화엄사 화엄석경의 복원은 복원에 필요한 돌, 이를 조성할 각수, 각황전을 장엄할 장인, 향후 이를 이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삼국유사 판각사업에 못지않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투고일 : 7월 10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29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29일

46) 한국역사연구회, 1996, 『역주 나말여초금석문』하, 혜안, pp.367-368

## [참고문헌]

### 1. 사료 및 자료

- 삼국사기, 삼국유사, 60화엄경, 화엄일승법계도, 화엄일승법계도기총수록, 최문창 후전집, 송판 법장화상전,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백지묵서화엄경, 월광사원량선사비문, 보림사보조선사비문

### 2. 단행본 및 저서

- 김복순, 1990,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2014, 『한국금석문집성-신라석경-』, 한국국학진흥원·청명문화재단
- 김상현, 1991,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 박남수, 1996,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 전혜주, 1993, 『의상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 한국역사연구회, 1996, 『역주 나말여초금석문』 상·하, 혜안
- 한성백제박물관, 2018, 『천년 만에 빛을 본 영국사와 도봉서원』

### 3. 논문류

- 강혜근, 2003, 「방산석경과 화엄석경 및 고려대장경의 비교연구」 『중국어문학논집』 24,
- 권영오, 2016, 「신라말 해인사와 주변지역 정세」 『한국고대사연구』 82
- 김복순, 2002, 「신라석경연구」 『동국사학』 57, 2003, 「의상의 행적-수학과 활동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2, 2012, 「화엄사 화엄석경의 판독과 조합시론」 『신라문화』 40
- 김진현, 2015, 「한역 화엄경의 보컬과 50권본의 한반도 유통」 『한국불교학』 76
- 노용필, 2018, 「통일신라기 금석문 전문 박사 학사의 대두와 서법 금석학의 풍미」 『한국고대사탐구』 28
- 박남수, 1994, 「통일신라 사원성전과 불사의 조영체계」 『동국사학』 28

- 박미선, 2011, 「신라 백지묵서화엄경의 사경 발원자와 사경장소」 『역사와 현실』 81
- 이규강, 2002, 「화엄석경과 방산석경의 이체자형 비교」 『중국어문학논집』 20,
- 이기백, 1972, 「신라 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진단학보』 33
- 이홍직, 1971, 「나말 전란과 치군」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 정상옥, 2000, 「불교금석의 발흥과 왕희지 서풍」 『불교미술』 16, 동국대학교 박물관
- 조미영, 2013, 「화엄석경의 서사 체재 연구」 『목간과 문자』 10, 2017,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신고찰」 『목간과 문자』 18, 2017, 「화엄석경의 저본 문제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69
- 최병헌, 1980, 「고려시대 화엄학의 변천-균여파와 의천파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0
- 최연식, 2011, 「신라 및 고려시대 화엄학 문헌의 성격과 내용」 『불교학보』 60